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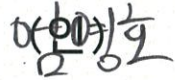




2026년도 제1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 심의안건

안건명	의결사항	수정사항
2025회계년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원안의결	

2026. 4.2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문규		위원	이용희	
위원	이종환 (인)		위원	임재근	
위원	엄영호		위원	김대진	
위원	표민찬 (인)		위원	김선중	
위원	홍수민		위원	임은희	
위원	이재호 (인)		위원	제세영 (인)	

2026회계연도 제1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일시	2026년 4월 23일(목)10:00
회의장소	대학본부 7층 소회의실
참석위원 (8명)	산학협력단장(이문규), 산학협력부단장(엄영호), 교무처장(이용희), 행정처장(임재근), 김대진, 김선중, 홍수민, 임은희
불참위원 (4명)	표민찬, 이재호, 제세영, 이종환

□ 심의안건

- 2025회계연도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회계 결산(안)

□ 회의내용

■ 산학협력단장

2026회계연도 제1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위원이 총 12명이고, 과반을 넘겨야 해서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일곱 분이 참석을 해서 이 회의는 성원이 되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김선중 위원 회의중간부터 참석)

이번에 하는 운영위원회는 25년도 회계 결산 보고 이고, 가감 없이 조언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인사말 이것으로 마치고요. 간단하게 참석해 주신 위원분들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소개 종략...)

■ 산학협력부단장

심의 안건 1번 문건 보시면요. 1페이지입니다.

관련 문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에서 고시된 산학협력 회계처리 규칙, 그리고 학교기업 회계처리 규칙을 바탕으로 결산과 감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2025년 회계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이며, 외부감사 및 내부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내부감사는 경영대학 정주렴 교수님께서 수행해주셨고, 외부회계감사는 태울회계법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였으며 결과는 적정의견입니다.

수입총계를 보시면 모두 유입된 자금이며, 2025년에 약 775억의 수입이 있었고 전년도

이월금이 약 427억입니다. 이를 합하면 약 1,200억 규모로 자금이 운용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출은 약 744억이며, 차기 이월금은 약 459억입니다. 이월금에는 연구 프로젝트별 이월금 약 320억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구비입니다. 또한 정기예금 약 139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기업별 설명은 이후 학교기업 본부장님이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더고구마 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의 경우 2025년도 결산 기준으로 매출이 2024년도에는 약 9,900만 원이었고, 2025년도에는 약 9억 9,200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작년에는 7월에 과제가 시작되어 올해 2월에 종료되면서 매출 변동이 있었고, 이번에는 1+ 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규 과제도 선정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외부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2024년 23명, 2025년 20명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창업실습 또한 51명에서 36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숫자 감소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나, 2024년에는 1인당 100만 원 지급이었으나 2025년에는 1인당 약 166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현장 인턴십도 150만 원에서 156만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숫자상 감소는 있으나 지원금 증가 및 참여 학과 확대(생명과학과, 경영학과 등)를 통해 전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단순 인원 감소보다는 교육의 질적 향상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표 달성률은 100%로 문제없이 달성하였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서류를 참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학과 김대진 위원

2페이지에 감가상각이 없는 건가요? 손익계산서에는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더고구마 본부장

아닙니다. 감가상각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고구마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구담'이라는 브랜드로 직접 생산 및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대학 사례를 참고하여 고구마를 활용한 주류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입니다.

예상 매출은 약 2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3학점짜리 개별학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매출보다 교육적 의미가 큰 사업이며, 학교기업은 기업성과 교육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질의응답은 마치겠습니다.

■ 더고구마 본부장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과에서 기념품이 필요하시면 요청 주시면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학과에 배포 완료하였으며,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다음은 시공간분석연구소 현황 보고입니다.

■ 시공간분석연구소 본부장

시공간분석연구소 본부장 김충호입니다.

본 연구소는 이승일 교수님께서 설립하였으며, 포닥 및 연구교수를 양성하고 학생 현장실습 까지 연계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연구소 자체는 영리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회사인 '미래도시솔루션'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연구소로 환원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현장실습 인건비는 약 165만 원 수준입니다.

감가상각비가 큰 이유는

서버 및 컴퓨터 등 기존 구축된 인프라 자산 때문이며 내용연수(5~10년)에 따라 매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향후 외부 수익 증가 및 BK사업 연계를 통해 개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행정학과 김대진 위원

감가상각비는 향후에도 동일 수준으로 발생하나요?

■ 시공간분석연구소 본부장

네, 현재 자산 구조상 당분간 동일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다음은 산학협력 수입·지출 현황입니다.

산학협력 수익은 용역 및 계약학과 사업 수입이며, 지원금 수익은 국가 R&D, BK, 라이즈 사업 등입니다.

이들 수익은 대부분 들어왔다가 그대로 집행되는 구조이고, 제일 큰 금액입니다.

간접비 수익은 과제에서 발생하는 간접비로 저희가 일부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운영외수익은 이자수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 수익은 약 6억 증가하였습니다. 정부용역이 약 8억 증가하고 민간용역은 약 2억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약 6억 증가한 상황입니다.

지원금 수익은 국가 R&D 사업 증가에 따라 확대되었으며, 전체적으로 약 56억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약 47억 증가, 기타 지원금 약 9억 증가로 보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서울 RISE 사업 등 대형 사업을 신규 수주하면서 증가 폭이 커졌습니다.

지원금 수익 증가에 따라 간접비 수익도 연동되어 약 7억 증가하였습니다.

이자수익은 감소하였는데, 금리 요인도 있지만 연구비 입금이 지연될 경우 산학협력단 재원을 활용해 선집행을 하면서 예치금이 감소한 영향이 있습니다.

지출 현황을 보면, 산학협력비는 용역이나 학과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입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지원금 사업비 역시 동일하게 들어온 연구비가 그대로 집행되는 구조로, R&D 수주 증가에 따라 직접비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간접비 사업도 일부 확대되었습니다.

교내과제, 우수논문 지원, 중대형 과제 신청 지원, 인력지원 사업 등에서 약 3억 증가하였고, 대형 과제 수주를 위해 외부 컨설팅 비용이 약 4억 증가하였습니다.

학교회계 전출금은 약 1.4억 감소하였고,

기술지주회사 출자금 등 투자활동 지출은 약 1억 감소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구조로 지출이 증가하였습니다.

운영성과를 보면,

운영수익은 약 736억 4,700만원,

운영비용은 약 739억 6,300만원으로

결과적으로 약 3억 1,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적자 규모가 다소 확대된 것으로, 간접비 지원 사업 확대에 따른 영향이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학협력단장

현장에서 일부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간접비 지원 확대나 대형 과제 수주 대응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로, 일정 부분은 투자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이 수입보다 계속 많아질 경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적자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조상 수입은 크게 변동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지출 구조를 중심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연구소 지원이나 간접비 환원 구조 등을 타 대학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 행정학과 김대진 위원

미수금 관련 내용은 뒤쪽 재무상태표에 나오는 부분 맞죠?

■ 산학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 영어영문학과 홍수민 위원
산학협력단이 계속 적자였나요?

■ 산학협력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자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작년부터고, 올해 적자가 커진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간접비 관련된 지출 이런 부분들은 크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재무상태표 하단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항목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약 7억 정도를 적립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립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재정 여유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보면 약 10억 정도의 재정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하반기에 구조 진단을 통해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 토목공학과 김선중 위원
회의자료에 2개년도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2022년이나 2023년에는 어땠습니까?

■ 재무회계 이정호 파트장
202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였고, 대형 사업 등 투자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2025년이 23기, 2024년이 22기 이고,
19기에는 약 26억 흑자,
20기 약 14억 흑자,
21기 약 16억 흑자였습니다.
최근 대형사업 확대 이후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 산학협력단장
사업을 확대하면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수익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 토목공학과 김선중 위원
현장에서는 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원이 줄어들 경우 부담이나 저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줄이기보다는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산학협력단장
그 부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하겠습니다.

■ 행정학과 김대진 위원

적자가 만약 누적된다면, 학교 예산으로 일부 보전하거나 그런 방식은 어려운 건가요?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조로 보입니다.

국가 재정을 보면 기금 적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사업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다만 지금 상황을 보면, 사업 취지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이고 대형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고용 효과와 유사한 긍정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실적 부진 때문인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산학협력단장

네,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 영향으로 올해부터는 신규로 수주한 사업들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그동안 대형 사업 수주 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점차 개선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회계는 학교 회계와 분리되어 있어, 직접적인 보전은 어려운 구조입니다.

■ 영문학과 홍수민 위원

외부 컨설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이는데, 맞습니까?

■ 산학협력단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내부 지원제도에 따라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

참여가 많아질수록 지원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외부 컨설팅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비용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BK 사업의 경우, 현재 약 3억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었습니다.

약 10개 사업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이 부분은 단기 지출이지만, 향후 그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하는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 영문학과 홍수민 위원

그 투자 성과는 언제쯤 회수된다고 보십니까?

■ 산학협력단장

만약 목표대로 선정될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 확보 등 무형적 효과를 포함하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영문학과 홍수민 위원

재무적인 수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 산학협력단장

네, 맞습니다.

BK 사업은 장학금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 지원으로 사용됩니다.

간접비 구조도 일반 국가사업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학생과 학교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사업 수주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적 성과가 비례해서 증가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되면서 교육적 효과는 분명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적자 규모는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만 이 상태가 5~7년 이상 지속된다면 그때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축적된 재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균형 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학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고,

현 총장님도 대형 사업 수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향후 총장 리더십 변화에 따라 방향이 일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전략을 급격히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학협력부단장

추가 의견 없으시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학협력단장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작년 24년 회계 적자 폭이 좀 늘어나게 돼서 조금 송구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방향을 우리가 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반기에 개선 사항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 제1회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